

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현황

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
김형준

- 이슬람은행이 1992년 처음 영업을 시작한 후,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함.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, 채권, 펀드, 주식시장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서도 이슬람식 영업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.

-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금융과 이슬람식 금융을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 요소를 배제하고 사업수익과 손실의 공유라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한 것임.
- 이자 금지 이외에도 불확실성이 수반된 계약과 투기가 금지되며, 비도덕적인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나 자금 제공 역시 금지됨.

● 인도네시아 이슬람은행의 발전 양상

- 2000년 2개였던 이슬람은행은 2005년 3개, 2009년 6개, 2011년 11개로 급성장. 일반 은행의 이슬람식 영업부 역시 2001년 3개에서 2011년 23개로 증가함.
- 2005~2010년 이슬람은행의 자산 증가추이와 전체은행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(2010년의 97.5조 루피아 = US \$108억).

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
자산 (조 루피아)	20.6	26.7	36.5	49.6	66.1	97.5
전체은행업에서 의 자산비중	1.4	1.58	1.84	2.14	2.61	3.16

- 이슬람은행 뿐만 아니라 이슬람보험, 펀드, 채권 역시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.

- 2005년 1퍼센트 미만에 머물렀던 전체보험사 대비 이슬람보험사 자산비중은 2010년 3.1%로 성장함.
- 2005년 5천억 루피아 규모였던 이슬람펀드의 운용액은 2010년 5조 2천억 규모로 성장함.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.4%에서 2010년 3.5%로 증가.
- 이슬람 회사채의 발행규모는 2006년 2천억 루피아에서 2010년 4배 증가하여 8천억 루피아에 이름.
-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서, 2008년 처음으로 4조7천억 루피아가 발행되었고, 2010년에는 그 규모가 44조 3천억 루피아로 급증함.

- 이슬람 금융의 성장은 경제활동에 이슬람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함. 이러한 모습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문이 금융업이지만, 다른 부문, 특히 소비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전개됨.

- 이슬람식 소비는 종교적으로 허용된 할랄(halal)음식만을 이용하려는 시도로 표현됨. 그 결과 대형 업체의 경우 식료품 판매를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화됨.
- 현재까지 화장품과 약품은 할랄 인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, 현재 논의중인 할랄인증규제안이 입법화될 경우 인증 필수화가 불가피함.
-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식 소비 욕구가 상승하는 추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음.

- 중동 국가의 오일머니의 유입처가 현재까지는 이슬람금융의 선발주자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, 최근의 급속한 성장 추이를 고려해보면 인도네시아 역시 주요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.

-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파이낸싱, 투자기업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영업활동, 그리고 상품 수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 요구됨.